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ILDEX



본고는 지난 8월 22~24일까지 3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던 ILDEX 박람회를 주관한 (주)N.C.C. M&D사 Mr. Kamolnai Chaixanien 사장을 만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도 양계산업 현황은 물론 박람회 개최 의의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듣는 자리를 가졌다.

아시아지역 축산 전시회 주도

N.C.C. management & Development Co., Ltd.(이하 NCC)는 지난 1991년 태국의 산업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전시 전문 업체이다.

현재 태국 방콕에 퀴시리킷 국제회의장을 비롯, 4개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페리얼 호텔도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이다.

NCC는 VIV 아시아 축산박람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양계, 양돈만으로 이루어지던 박람회를 수산과 낙농업까지 확대하여 ILDEX 박람회를 주관해 오고 있다.

Kamolnai Chaixanien(이하 카몰라이) NCC 사장은 9년 동안 NCC그룹하의 임페리얼 호텔의 경영자로 일해오다 업계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2년 전인 2006년부터 NCC사장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전시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NCC사는 축산박람회 뿐만 아니라 웨딩, 건강, 여행 등 전반적인 산업 전시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축산발전을 목표로한 ILDEX 박람회

카몰라이 사장은 ILDEX가 일반 축산박람회와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ILDEX는 국제 축산, 낙농, 수산업을 통틀어서 개최되는 박람회이며,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그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나 미국의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유럽의 유로티어(UROTIER), 네덜란드의 VIV박람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ILDEX의 맨 앞 글자는 International의 약자로 전세계 전시참관인이 아닌 전세계 전시업체들을 겨냥한 박람회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전시업체들이 지난 대회에는 참여하였지만 금년에 한 업체도 ILDEX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아 아쉽다는 카몰라이 사장은 지난해 참가했던 업체들이 다른 국제 박람회와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작고 박람회를 둘러보는 참관인들의 대부분이 인도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망했을 것이라는 데 동감을 하였다.

하지만 본 박람회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양계 선진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홍보할 경우 앞으로 새로운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잠재력 높은 인도, 박람회 매년 개최키로

카몰라이 사장에 따르면 인도는 계란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45개, 닭고기는 1.8kg로 낮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경제력을 가진 6%에 해당하는 부유층들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비가 증가할 경우



▲ 인도 주정부로부터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카몰라이 사장(우측에서 세 번째)

양계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축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따라서 카몰라이 사장은 인도에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그 만큼 발전가능성이 있고 매년 연계성 있는 박람회를 통해 정부의 관심을 축산분야에 끌어들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당시 인도정부의 재정경제분야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친히 참석하여 카몰라이 사장과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할 정도로 박람회와 인도경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ILDEX는 중국, 인도, 베트남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베트남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카몰라이 사장은 이번 박람회의 특징에 대해 인재육성과 전문적인 정보의 장을 마련한 것을 들었다. 즉, ILDEX 박람회는 전시회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4개의 세미나가 2일간 개최되었고, 국내 수의과 학생들이 한켠에 포스터를 전시할 수 있게 하여 인재육성 및 취업을 유도하는 박람회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타 박람회와 차별화를 둔 ILDEX 박람회에 한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여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